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4(1) 음운의 변동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보기>로 제시한 음운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언어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음운 변동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ㄴ’ 첨가, 반모음 첨가, 거센소리되기, 모음 축약 등과 같은 개별 음운 변동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 유형에 따른 개별 음운 변동 현상의 개념을 학습해 두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단어들끼리 결합하면서 <보기>와 같이 음운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보기>

- ㉠ 불+여우 → [불려우]
- ㉡ 흙+일 → [흥닐]
- ㉢ 값+나가다 → [감나가다]

- ① ㉠에 첨가된 음운과 ㉡에 첨가된 음운은 서로 다르다.
- ② ㉠과 ㉡이 음운 변동을 겪은 이후, 처음과 달리 음운의 개수가 서로 같아졌다.
- ③ ㉡과 ㉢의 겹받침에서 탈락한 자음의 앞뒤 위치는 서로 같다.
- ④ ㉠은 ㉡, ㉢과 달리 동화의 방향과 동화의 정도가 다르다.
- ⑤ ㉠, ㉡, ㉢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의 변동이 있다.

2. <보기1>과 <보기2>를 고려하여 ㉡와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1>

새벽부터 심한 감기에 ㉠알던 그는 눈을 뜨자마자 ㉡알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보기2>

교사: <보기1>의 ㉠과 ㉡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학습해 볼까요?

학생: ㉠에서는 ㉡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고, ㉡에서는 ㉣, ㉤ 2가지의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 일어난 예

㉣, ㉤가 모두 일어난 예

- | | | |
|---|-----|-----|
| ㉠ | 여덟 | 불여우 |
| ㉡ | 좋아 | 색연필 |
| ㉢ | 값하다 | 눈요기 |
| ㉣ | 굽기다 | 신여성 |
| ㉤ | 굽히다 | 서울역 |

3. <보기>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늙는[능는]
- ㉡ 술하다[수타다]
- ㉢ 발야구[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 ② ㉠~㉢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는데.
- ③ ㉠과 ㉢은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 ④ ㉠에는 ‘부엌에서’를 발음할 때와 같이 음절 끝에서 소리 나는 음운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있군.
- ⑤ ㉡에는 ‘한라산’, ‘올여름’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4. <보기>의 ㉠~㉣과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 굳이, 해돋이
 ㉡ 막는다, 식물, 심리
 ㉢ 여덟, 값, 외곶

- | ㉠ | ㉡ | ㉢ |
|------------|------------|---|
| ① 미달이, 별이 | 담력, 잡는, 난로 | 넋 |
| ② 미달이, 별이 | 밥물, 먹는 | 넋 |
| ③ 미달이, 별이 | 담력, 잡는, 난로 | 밖 |
| ④ 붙이다, 닫히다 | 밥물, 먹는 | 밖 |
| ⑤ 붙이다, 닫히다 | 담력, 잡는, 난로 | 밖 |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난로[نال로], 진리[질리]
 (나) 앓다[알타], 막다[막따]
 (다) 밟는다[밤는다], 읽는다[잉는다]
 (라) 넣어[너어], 놓다[너타]

- ① (가): 종성 자리의 ‘ㄴ’이 뒤 음절 ‘ㄹ’의 영향으로 조음 방법이 달라진다.
- ② (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종성의 자음 중 ‘ㄹ’이 남는다.
- ③ (다): ‘ㄹ’이 들어간 겹받침은 탈락하는 자음에 따라 음운의 변동 현상이 달라진다.
- ④ (라): 어간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음이 항상 탈락한다.
- ⑤ (가)~(라): 모든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다.

신유형

<표준 발음법> 규정을 바탕으로 개별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 음운 변동의 유형에 따른 음운 변동 양상과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단어의 발음에 대해 묻는 문제,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 유형에 따른 개별 음운 변동 현상의 개념을 학습해 두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에 따른 표준 발음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보기>를 참고할 때,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화란 어떤 음이 인접한 음과 비슷해지거나 아주 같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조음의 편의를 위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의 하나이다. 동화는 ㉠ 자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와 ㉡ 모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 ㉢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 등으로 나뉜다.

- ① ‘한라산’을 [할라산]으로 발음했다면 ㉠에 해당한다.
- ② ‘아끼다’를 [애끼다]로 발음했다면 ㉡에 해당한다.
- ③ ‘달맞이’를 [달마지]로 발음했다면 ㉢에 해당한다.
- ④ ‘있는’을 [인는]으로 발음했다면 ㉠에 해당한다.
- ⑤ ‘밭이랑’을 [반니랑]으로 발음했다면 ㉠, [바치랑]으로 발음했다면 ㉢에 해당한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의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보기>

㉠ 어떤 음운이 없어진다.
 ㉡ 새로운 음운이 생긴다.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진다.

- ① ‘삿일[상닐]’과 ‘값있는[가빈는]’을 ㉠과 ㉡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 ② ‘넋이[녁씨]’와 ‘외곶으로[외곶쓰로]’를 ㉠과 ㉢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 ③ ‘술잎[술립]’과 ‘영업용[영업똥]’을 ㉡과 ㉢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 ④ ‘굳힘약[구침낙]’과 ‘직행열차[지갱널차]’를 ㉡과 ㉢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 ⑤ ‘꿇앉히다[꾸란치다]’와 ‘닭하고[다카고]’를 ㉠, ㉢, ㉣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틀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다음은 흔히 친구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을 바른 발음으로 고친 예입니다.

예시	여덟이	홀이불	밧고	팔이	부억에
틀린 발음	여더리	호디불	밭 : 꼬	파시	부어게
바른 발음	여덜비	훈니불	밥 : 꼬	파치	부어게

- ① ‘여덟이’는 겹받침 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 예시이므로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해야 합니다.
- ② ‘홀이불’은 ‘ㄴ’ 첨가가 일어날 환경이므로 첨가 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자음동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 ③ ‘밧고’는 겹받침 ‘ㅃ’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뒤 ‘ㄹ’을 탈락시키고 된소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④ ‘팔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연음한 뒤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 ⑤ ‘부억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만 해야 합니다.

9. 다음은 된소리되기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ㄴ, ㄹ’, ‘ㅃ, ㅆ’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① ‘나는 문을 닫았다.’에서 ‘닫았다’는 ㉠에 해당되지 않는군.
- ②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에서 ‘신고’는 ㉡에 해당하는 예시겠네.
- ③ ㉡에 따르면, ‘그는 나를 잘 안다.’에서 ‘안다’는 [안따]로 발음해야겠어.
- ④ ㉢에 따르면, ‘무단횡단은 불법이다.’에서 ‘불법(不法)’은 [불뽵]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에서 ‘할 수’는 ㉣에 해당하는 예시겠네.

10.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훅이→[벼훅치]’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 ② ‘잘나다→[잘라다]’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앞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어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③ ‘키웁만→[키웁만]’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앞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어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④ ‘광한루→[광할루]’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뒤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어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⑤ ‘몽마른→[몽마른]’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뒤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어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보기>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ㄷ, ㅌ(ㄹ)’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굳이’는 ㉠에 따라 ‘ㄷ’을 [ㅈ]으로 바꿔 [구지]로 발음한다.
- ② ‘미달이’는 ㉡에 따라 ‘ㄷ’을 [ㅈ]으로 바꿔 [미다지]로 발음한다.
- ③ ‘같이 걷다’의 ‘같이’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한다.
- ④ ‘우리 발이다’의 ‘발이다’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한다.
- ⑤ ‘발이랑에는 콩이’의 ‘발이랑’은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바치랑]으로 발음한다.

12. <보기>의 ㄱ~ㄷ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ㄱ. 국물[궁물] ㄴ. 편리[펼리] ㄷ. 맏이[마지]

- ① ㄱ: 비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② ㄱ: 유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 ③ ㄴ: 비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④ ㄴ: 유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것이다.
- ⑤ ㄷ: 구개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것이다.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관계없는 것은?

<보기>

동화란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같아지거나 닮아 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다.

- ① 맨입[맨닙]
- ② 짝는[깡는]
- ③ 꽃망울[꼰망울]
- ④ 줄넘기[줄럼끼]
- ⑤ 미달이[미다지]

14. <보기>의 발음 규정을 참고할 때, 다음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발음한다.
- 겹받침에 관한 발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겹받침 ‘ㄱ’, ‘ㄴ’, ‘ㄹ’, ‘ㄹ’, ‘ㄹ’, ‘ㅁ’의 경우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뺨다’만은 [뺨 : 따]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ㄹ’, ‘ㅁ’, ‘ㅁ’의 경우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① 겹받침의 발음 규정을 보니 ‘뺨고’는 [뺨 : 꼬]로 발음해야 하는군.
- ② 겹받침의 발음 규정을 보니 ‘없고’는 [엄꼬]로 발음해야 하는군.
- ③ 겹받침의 발음 규정을 보니 ‘맑고’는 [막꼬]로 발음해야 하는군.
- ④ 겹받침의 발음 규정을 보니 ‘옹고’는 [을꼬]로 발음해야 하는군.
- ⑤ 겹받침의 발음 규정을 보니 ‘할고’는 [할꼬]로 발음해야 하는군.

15.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보기>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뒤에 모음 ‘ㄴ, ㄷ’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 ‘[j]’가 새로 생겨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두 음운이 만날 때 원래 없던 음운이 생겨 소리 나기 때문에 ‘음운의 첨가’에 해당한다.

- ① 달밤을 주제로 벽화를 **그리어** 볼까?
- ②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매었다.
- ③ 환기를 위해 각 교실의 창문을 **열어주시오**.
- ④ 다시 장면이 **바뀌어** 무대는 거실로 변한다.
- ⑤ 냉방기 틀어놓고 **안락의자에** 앉아 수박을 먹는 맛이란!

16. 밑줄 친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	원래의 형태와 탈락한 모음
① 정말 기빠 .	어간 '기쁘-'와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ㅡ'가 탈락함.
② 발목이 잡혀 .	어간 '잡히-'와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ㅣ'가 탈락함.
③ 촛불이 뒹다 .	어간 '타-'와 어미 '-았다'가 결합하면서 동일 모음 'ㅏ'가 탈락함.
④ 문을 잡가라 .	어간 '잡그-'와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ㅡ'가 탈락함.
⑤ 차가 멈춰 섰다 .	어간 '서-'와 어미 '-었다'가 결합하면서 동일 모음 'ㅓ'가 탈락함.

1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앞날[암날]'에서는 ㉠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 ② '값어치[가버치]'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굳힌[구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흙화덕[흐과덕]'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직행열차[지갱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8.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를 이해한다고 할 때, ㉠~㉣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을 만나 비음 'ㅇ, ㄴ, ㅁ'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 거센소리되기: 'ㅎ' 음운이 'ㄱ, ㄷ, ㅂ, ㅈ'과 만나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
- 구개음화: 'ㅣ' 또는 '반모음 ㅟ'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ㄷ, ㅌ'이 구개음 'ㄷ, 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 'ㄴ' 첨가: 합성 명사나 이에 준할 만한 말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ㅣ, ㅏ, ㅓ, ㅜ, ㅠ'로 시작하는 경우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현상

<보기2>

발이랑 → 받이랑 → 반니랑 → 반니랑

㉠ ㉡ ㉢

- | | | | |
|---|---------------|--------|--------|
| | ㉠ | ㉡ | ㉢ |
| ① | 구개음화 | 'ㄴ' 첨가 | 된소리되기 |
| ② | 구개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③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구개음화 | 비음화 |
| ④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 비음화 |
| 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 된소리되기 |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③

① ㉠ ‘불여우’는 ‘[불녀우] → [불려우]’로 ‘ㄴ’ 첨가가 적용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난다. ㉡ ‘흙일’은 ‘[흑일] → [흑닐] → [흥닐]’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 ㉡에 첨가된 음운은 ‘ㄴ’으로 같다.

③ ㉢ ‘흙일’은 ‘[흑일] → [흑닐] → [흥닐]’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난다. ㉣ ‘값나가다’는 ‘[갑나가다] → [감나가다]’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의 겹받침에서 탈락한 자음은 ‘ㄹ’로 앞의 자음이 탈락하였고, ㉣의 겹받침에서 탈락한 자음은 ‘ㅅ’으로 뒤의 자음이 탈락하였으므로, ㉡과 ㉣의 겹받침에서 탈락한 자음의 앞뒤 위치는 서로 다르다.

② ㉠ ‘불여우’는 ‘[불녀우] → [불려우]’로 ‘ㄴ’ 첨가가 적용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난다. ㉡ ‘흙일’은 ‘[흑일] → [흑닐] → [흥닐]’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난다. 음운 변동을 겪기 전 ㉠의 음운은 5개, ㉡의 음운은 6개이고, 음운 변동을 겪은 후 ㉠의 음운은 6개, ㉡의 음운은 6개로, ㉠과 ㉡이 음운 변동을 겪은 이후, 처음과 달리 음운의 개수가 6개로 서로 같아졌다.

④ ㉠ ‘불여우’는 ‘[불녀우] → [불려우]’로 ‘ㄴ’ 첨가가 적용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난다. ㉡ ‘흙일’은 ‘[흑일] → [흑닐] → [흥닐]’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난다. ㉢ ‘값나가다’는 ‘[갑나가다] → [감나가다]’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은 순행동화, 완전동화에 해당하며 ㉡, ㉢은 역행동화, 불완전동화에 해당하므로, ㉠은 ㉡, ㉢과 달리 동화의 방향과 동화의 정도가 다르다.

⑤ ㉠ ‘불여우’는 ‘[불녀우] → [불려우]’로 ‘ㄴ’ 첨가가 적용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난다. ㉡ ‘흙일’은 ‘[흑일] → [흑닐] → [흥닐]’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난다. ㉣ ‘값나가다’는 ‘[갑나가다] → [감나가다]’로 자음

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에는 유음화가, ㉡에는 비음화가, ㉢에는 비음화가 적용되었으므로 ㉠, ㉡, ㉢은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의 변동이 있다.

2. **정답** ⑤

‘굽히다[구피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서울역’은 ‘[서울녁] → [서울력]’으로 ‘ㄴ’ 첨가가 먼저 적용된 후에,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축약(㉡), 첨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하다.

㉠, ㉡의 음운 변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알던[알턴]’은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에서는 축약(㉡)을 확인할 수 있다. ㉡ ‘알약’은 ‘[알낙] → [알략]’으로 ‘ㄴ’ 첨가가 먼저 적용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에서는 첨가(㉢), 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여덟[여덜]’은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난다. ‘불여우’는 ‘[불녀우] → [불려우]’로 ‘ㄴ’ 첨가(첨가)가 적용된 후에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② ‘좋아[조아]’는 ‘ㅎ’ 탈락(탈락)이 일어난다. ‘색연필’은 ‘[색년필] → [생년필]’로 ‘ㄴ’ 첨가(첨가)가 먼저 적용된 후에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③ ‘값하다’는 ‘[갑하다] → [가파다]’로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먼저 적용된 후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눈요기[눈뇨기]’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난다.

④ ‘굽기다[굽기다]’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난다. ‘신여성[신녀성]’은 ‘ㄴ’ 첨가가 일어난다.

3. **정답** ④

‘부엌에서[부어커서]’는 연음이 되었을 뿐,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 음운 변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늑’은 ‘[늑는] → [능는]’으로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먼저 적용된 후에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술하다’는 ‘[술하다] → [수타다]’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먼저 적용된 후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밭야구’는 ‘[밭냐구] → [밭랴구]’로 ‘ㄴ’ 첨가(첨가)가 먼저 일어난 후에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① ㉠, ㉡, ㉢은 모두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다.
- ② 음운 변동 결과 ㉠, ㉡은 음운이 '-1', ㉢은 '+1'만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겼다.
- ③ ㉠은 비음화, ㉢은 유음화로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한라산[할라산]'은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올여름' '[올녀름] → [올러름]'으로 'ㄴ'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에는 '한라산', '올여름'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4. [정답] ②

'미달이[미다지]', '별이[벼치]'는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밥물[밤물]', '먹는[멍는]'은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다. '넋[넉]'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의 음운 변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는 모두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막는다[망는다], 식물[싱물], 심리[심니]'는 모두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여덟[여덜], 값[갑], 외곶[외골]'은 모두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난다.

① '미달이[미다지]', '별이[벼치]'는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담력[담녁], 잡는[잠는]'은 비음화(㉡)가,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넋[넉]'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③ '미달이[미다지]', '별이[벼치]'는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담력[담녁], 잡는[잠는]'은 비음화(㉡)가,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밖[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적용된다.

④ '붙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달히다'는 '[다티다] → [다치다]'로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먼저 일어난 후에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밖[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적용된다.

⑤ '붙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달히다'는 '[다티다] → [다치다]'로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먼저 일어난 후에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담력[담녁], 잡는[잠는]'은 비음화(㉡)가,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밖[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적용된다.

5. [정답] ①

(가): 종성 자리의 'ㄴ'이 뒤 음절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나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ㄴ'(비음)이 'ㄹ'(유음)로 바뀐 것은 조음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가)~(라)의 음운 변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난로[날로], 진리[질리]'는 모두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나) '않다[알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맑다'는 '[막다] → [막따]'로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먼저 적용된 후에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다) '밟는다'는 '[밥는다] → [밤는다]'로, '읽는다'는 '[익는다] → [잉는다]'로 모두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먼저 일어나고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라) '넣어[너어]'는 'ㅎ' 탈락(탈락)이, '널다[너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② (나): '맑다'는 '[막다] → [막따]'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며,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종성의 자음 중 'ㄱ'이 남는다.

③ (다): '밟는다'와 '읽는다'는 모두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였으므로 'ㄹ'이 들어간 겹받침은 탈락하는 자음에 따라 음운의 변동 현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④ (라): '널다[너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났으므로 어간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음이 항상 탈락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라): 음운 변동 결과 (가)는 교체만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다. (나)~(라)는 음운 변동 결과 '-1'만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6. [정답] ③

'달맞이'를 [달마지]로 발음했다면 연음에 해당하므로 동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한라산'을 [할라산]으로 발음했다면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② '아끼다'를 [애끼다]로 발음했다면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ㅏ'가 'ㅐ'로 바뀌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있는'은 '[읷는] → [읷는]'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있는'을 [읷는]으로 발음했다면 ㉠에 해당한다.

⑤ '발이랑'을 [반니랑]으로 발음했다면 '발이랑'은

‘[밭이랑] → [받니랑] → [반니랑]’으로 음운 변동 (㉠)이 일어나며, ‘밭이랑’을 [바치랑]으로 발음했다면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형식 형태소 ‘ㅣ’ 모음에 의해 ‘ㅌ’이 ‘ㅊ’으로 바뀌는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에 해당한다.

7. **정답** ③, ④

③ ‘술잎’은 ‘[술입] → [술닙] → [술립]’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먼저 적용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유음화(교체)가 적용된다. ‘영업용’은 ‘[영업농] → [영염농]’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 후에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술잎’과 ‘영업용’은 ㉠(첨가)과 ㉡(교체)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④ ‘굳힘약’은 ‘[구팀약] → [구침약] → [구침낙]’으로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먼저 일어난 후에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다. ‘직행열차’는 ‘[지쟁열차] → [지쟁널차]’로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먼저 일어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난다. 따라서 ‘굳힘약’과 ‘직행열차’는 ㉠(첨가)과 ㉡(축약)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① ‘삿일’은 ‘[삭일] → [삭닐] → [상닐]’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탈락)과 ㉡(첨가)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들 수 있지만, ‘값있는’은 ‘[갑입는] → [갑인는] → [가빈는]’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탈락)의 음운 변동은 일어났으나, ㉡(첨가)의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② ‘뉘이[닉씨]’와 ‘외곶으로[외골쓰로]’는 연음된 후에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⑤ ‘꿀앓히다’는 ‘[꿀안치다] → [꾸란치다]’로 겹받침 중 뒤 자음인 ‘ㅎ’이 탈락하고, ‘ㅈ’과 ‘ㅎ’이 결합하여 ‘ㅊ’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닭하고’는 ‘[닥하고] → [다카고]’로 겹받침 중 앞 자음인 ‘ㄹ’이 탈락한 후에 ‘ㄱ’과 ‘ㅎ’이 결합하여 ‘ㅋ’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꿀앓히다’와 ‘닭하고’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들 수 있다.

8. **정답** ④

‘팔이[파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연음한 뒤 구개음화를 적용해 ‘ㅌ’을 ‘ㅊ’으로 발음해야 한다.

① ‘어덥이’는 겹받침 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 예시이므로 [어더리]라고 발음하는 것은 틀린 발음이며,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해서 [어덜비]라고 발음해야 한다.

② ‘홀이불’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ㅣ’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ㄴ’ 첨가가 일어날 환경이므로 ‘ㄴ’을 첨가한 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ㅌ’을 ‘ㄷ’으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자음동화)를 적용해야 한다.

③ ‘밟고’는 ‘[밥고] → [밥꼬]’로 겹받침 ‘ㅃ’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된 후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부엌에’는 홑받침(‘ㄱ’)이 모음(‘ㅞ’)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하여 [부어게]라고 발음해야 한다.

9. **정답** 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에서 ‘할 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ㅅ’이 온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① ‘나는 문을 닫았다.’에서 ‘닫았다’는 ‘[다닫다] → [다닫따]’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ㄷ’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ㄷ’이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닫았다’는 ㉡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②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에서 ‘신고’는 ㉡~㉢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③ ‘그는 나를 잘 안다.’에서 ‘안다’는 기본형이 ‘알다’이므로 ㉡~㉢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④ ㉡에 따르면, ‘무단횡단은 불법이다.’에서 ‘불법(不法)’의 뒷말의 초성 ‘ㅂ’은,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뻑]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국립국어원에서 2017년에 표준 발음을 일부 개정하면서 ‘불법’을 [불뻑]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10. [정답] ③

‘키읃만’은 [키읃만] → [키음만]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난 후에 ‘ㄱ’이 뒤에 오는 자음 ‘ㅁ’(비음)에 동화되어 ‘ㅇ’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① ‘벼훤이[벼훤치]’는 ‘ㅌ’이 ‘ㅊ’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적용된다. 음운 변동의 결과,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뀌었고,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② ‘잘나다[잘라다]’는 ‘ㄴ’이 앞에 오는 자음 ‘ㄹ’(유음)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결과, 앞에 오는 자음(‘ㄹ’)에 동화되어 조음 방법이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었다.

④ ‘광한루[광할루]’는 ‘ㄴ’(비음)이 뒤에 오는 자음 ‘ㄹ’(유음)에 동화되어 ‘ㄹ’(유음)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⑤ ‘목마른[몽마른]’은 ‘ㄱ’(파열음)이 뒤에 오는 자음 ‘ㅁ’(비음)에 동화되어 ‘ㅇ’(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11. [정답] ②

‘미닫이’의 ‘이’는 접미사의 모음 ‘ㅣ’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ㄷ’을 [ㅈ]으로 바꿔 [미다지]로 발음한다.

① ‘굳이’의 ‘이’는 접미사의 모음 ‘ㅣ’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ㄷ’을 [ㅈ]으로 바꿔 [구지]로 발음한다.

③ ‘같이’의 ‘이’는 접미사의 모음 ‘ㅣ’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한다.

④ ‘밭이다’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한다.

⑤ ‘밭이랑’의 ‘이랑’은 실질형태소에 해당하므로 ㉢,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밭이랑’은 [반니랑]으로 발음한다.

12. [정답] ⑤

ㄷ: ‘말이[마지]’는 ‘ㄷ’이 형식 형태소 ‘ㅣ’ 모음 앞에서 ‘ㅈ’으로 바뀐 것으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치조음이자 파열음인 ‘ㄷ’이 경구개음이자 파찰음인 ‘ㅈ’으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것이다.

①, ② ㄱ: ‘국물[궁물]’은 ‘ㄱ’이 ‘ㄹ’(비음)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뀐 것으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파열음인 ‘ㄱ’이 비음인 ‘ㅇ’으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③, ④ ㄴ: ‘편리[펼리]’는 ‘ㄴ’이 ‘ㄹ’(유음)의 영향으로 ‘ㄹ’로 바뀐 것으로, 유음화에 해당한다.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13. [정답] ①

‘맨입[맨닙]’은 ‘ㄴ’ 첨가가 일어난 것으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화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② ‘깍는’은 [깍는] → [깡는]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보기>에 따르면, 비음화는 대표적인 동화 현상에 해당한다.

③ ‘꽃망울’은 [꼇망울] → [꼇망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보기>에 따르면, 비음화는 대표적인 동화 현상에 해당한다.

④ ‘줄넘기[줄럼끼]’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보기>에 따르면, 유음화는 대표적인 동화 현상에 해당한다.

⑤ ‘미닫이[미다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보기>에 따르면, 구개음화는 대표적인 동화 현상에 해당한다.

14. [정답] ⑤

겹받침의 발음 규정 ㉡에 따르면, ‘할고’의 겹받침 ‘ㄹ’은 ‘ㄹ’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할꼬]로 발음해야 한다.

① 겹받침의 발음 규정 ㉡의 ‘다만’에 따르면, ‘밧다’만은 [밧 : 따]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밧고’는 [밧 : 꼬]로 발음해야 한다.

② 겹받침의 발음 규정 ㉡에 따르면, ‘엷고’의 겹받침 ‘ㅃ’은 ‘ㅃ’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엷꼬]로 발음해야 한다.

③ 겹받침의 발음 규정 ㉣의 ‘다만’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해야 한다.

④ 겹받침의 발음 규정 ㉣에 따르면, ‘윽고’의 겹받침 ‘ㄹ’은 ‘ㅃ’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윽꼬]로